



■ 연구원 소식

- 4월 23일(月) : 주간회의
- 4월 24일(火) : 화순 출장(명옥헌 관련 자료조사)
- 4월 28일(土) : 역사문화답사(오월길 답사)

■ 연구원 소식

○ 2018년 제1차 지역문화답사 (4월 21일)

: 작년부터 우리 연구원 김천식 박사께서 지역문화 답사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2018년 1회 지역문화답사는 전남 순천과 섬진강을 찾았습니다. 모두 6명의 회원이 참석하셔서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018년 오월길 답사 일정 (4월 28일)

4월 28일(토)에 오월길 답사를 진행하고 합니다. 5·18을 앞두고 사적지 답사를 통한 항쟁의 의미를 공유하고 광주·전남에 거주하시는 회원과 전북 회원간의 교류를 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사비는 10,000원입니다!!!**

- 답 사 일 정 -

일 정	내 용
08:30~09:00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집결
09:00~10:30	국립 5·18민주묘지 이동
10:30~11:30	구묘역, 신묘역 참배 및 추모관 방문
11:30~12:30	점심식사
13:00~14:00	전남대 정문 도착 및 특강(조진태 시인/5.18기념재단 상임이사)
14:30~15:30	광천동성당·광주시민아파트·농성광장 답사
16:00~17:30	전주이동
17:30~20:00	소감나누기

♣ 2차 해외역사탐방 일정

날 짜	도 시	일 정			
-제1일- 6/29 금요일	인천	15:30 인천국제공항으로 집결 17:55 대한항공 KE-983편 인천 출발 / 이르쿠츠크 향발[4시간15분 소요] 21:15 이르쿠츠크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호텔 투숙			
	이르쿠츠크	HOTEL : 바이칼 비즈니스센터(4성) or Same Class			기내식
-제2일- 6/30 토요일	이르쿠츠크	호텔 조식 후 딸찌로 이동 ▶ 딸찌 민속촌 리스트비얀카로 이동 ▶ 바이칼과 앙가라 강을 조망할 수 있는 픽체르스키 전망대 (편도 리프트 탑승 / 약 5분 소요)			
	딸찌 리스트비얀카 이르쿠츠크	▶ 바이칼 호수의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생태학 박물관 (내부관광) ▶ 바이칼 지역의 수공예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볼 수 있는 노천시장 ▶ 아름답고 고즈넉한 목조 건물 성니콜라이 교회 이르쿠츠크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바이칼 비즈니스 센터 4성 or Same Class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제 3 일- 7/1 일요일	이르쿠츠크 슬류지얀카	조식 후 이르쿠츠크 역으로 이동 환바이칼 관광열차 탑승 ▶ 이르쿠츠크 → 슬류지얀카 → 뽀르트 바이칼 구간 (약 9시간 소요) ▶ 슬류비얀카 역 ▶ 앙가술까 마을			
	아가술까 빨라빈니 슈미하 뽀트트바이칼 리스트비얀카 이르쿠츠크	▶ 빨라빈니 마을 ▶ 시베리아 원주민 집 ▶ 슈미하 마을(걸어서 터널 통과) ▣ 뽀르트 바이칼 역 도착 후 연락선을 타고 리스트비얀카로 이동 (약 20분 소요) ▣ 리스트비얀카 도착 후 전용차량으로 이르쿠츠크로 이동 (약 50분 소요) 석식 후 호텔로 이동 및 휴식			
		HOTEL : 바이칼 비즈니스 센터(4성) or Same Class	호텔식	도시락	현지식

날 짜	도 시	일 정			
-제 4 일- 7/2 월요일	이르쿠츠크	호텔 조식 후 알혼섬으로 이동 (약6시간 소요) ▶우스찌아르다 부랴트 성황당			
	우스찌아르다 바얀다이 엘란치 샤후르따	바얀다이 통과-엘란치 통과-샤후르따 선착장 도착 연락선을 따고 말로예 모레를 통과하여 알혼섬 도착 러시아산 미니버스(4WD)로 환승 후 후지르 마을로 이동 러시아 전통반야체험 석식 후 호텔 체크인			
	알혼섬 후지르	HOTEL : 바이칼로브 오스트룩 or Same class	현지식	현지식	현지식
-제 5 일- 7/3 화요일	알혼섬	알혼섬일주관광 ▶ 부르한 바위(샤먼바위) - 샤먼의식이 행해졌던 바위 ▶ 빼시안카(부두) - 소비에트 시절 강제 수용소가 있던 터 ▶ 하란치 - 사자바위,악어바위 감상 ▶ 시간후순 - 삼형제 바위가 있는 곳 ▶ 하보이 언덕 - 알혼섬의 최북단 ▶ 사랑의 언덕 - 하트 모양의 언덕 ▶ 우주리 만 - 자갈로 덮인 만으로 북쪽			
		HOTEL : 바이칼로브 오스트룩 or Same class	호텔식	야외식	현지식
-제 6 일- 7/4 수요일	알혼섬 우스찌아르다 이르쿠츠크	조식 후 알혼섬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바지선 탑승 후 이동(약 15~20분) 버스타고 이르쿠츠크로 이동[약 5시간] 이르쿠츠크 도착하여 시내관광 ▶ 즈나멘스키 수도원 ▶ 키로바 광장과 양가라 강변 ▶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 아르바트 거리 130번가 23:55 대한항공편 이르쿠츠크 출발 / 인천 향발			
		HOTEL : 기내숙박	호텔식	부랴트식	현지식
-제 7 일- 7/5 목요일	이르쿠츠크 인천	04:45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답사기간은 확정이나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왕유(王維, 699-759) - “시 속에 그림이 들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불(詩佛)’이라는 칭호를 얻은 자연시인이다. 현존하는 시는 400여 수인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근체시이고, 나머지는 고체시이다. 전원의 풍경과 한적한 정취를 노래했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노래했다.

■ 작 품

鹿柴(녹채)	사슴 울타리
空山不見人(공산불견인)	빈산에 사람 보지 않고
但聞人語響(단문인어향)	다만 들리는 건 사람 말소리
返景入深林(반경입심림)	석양빛이 깊은 숲에 들어와
復照青苔上(부조청태상)	다시금 푸른 이끼 비추누나

■ 감 상

인적이 드문 산의 저녁 경치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누엣누엣 기운 석양빛이 깊은 숲 속으로 스며들어와, 푸른 이끼 위를 살포시 되비치는 고즈넉한 풍광이 절로 떠오르는 작품이다. 분명 시를 읽는데, 한 폭의 그림이 살며시 떠오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왕유의 시작품에는 그림이 깃들여 있다고 일컬어진다. 왕유 시가 주로 지닌 안한(安閑)하면서도 여운 깊은 이미지가 저절로 동양화 고유의 운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 역사속의 오늘

■ 저울 형(衡)처럼 평등한(平) 세상을 꿈꾸다(1923. 04. 25) ■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제 강점 기간 내내 이 땅의 민인들은 제국주의로부터 민족모순과 피압박계급의 계급모순을 동시에 타파하기 위해 분투했다. 오늘 이야기 될 "형평운동"은 피압박계급 가운데서도 가장 말단에 위치한 백정들의 피어린 싸움과 관련된 것이다.

'평등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려는 인류의 주요 소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평등사회는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곳곳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람답게 존중받지 못하고, 또 제각기 다르게 매겨진 사람값에 따라 차별받는 것을 보게된다. 그렇지만 평등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특히 근세기에 들어서 집합행동의 형태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따라 내용도 다르고 활동 모습도 다양하지만, '사회평등'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역사 방향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인간 사회의 평등을 지향한 집합적 노력은 우리 역사에도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나 1935년까지 유지된 형평사(衡平社)의 활동을 일컫는 형평운동이다. 이 땅의 역사와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천민중의 천민으로 차별을 받아온 백정(白丁)들의 인권 존중과 평등 대우를 주장한 사회 운동이었다. 그 말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대대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던 백정들의 작업 도구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운동"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일차적으로 그것은 그 시대 백정의 사회적 위치나 차별 대우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1920년 당시 진주의 인구가 2만4천 여명이었고, 그 중에서 약 350명 정도의 백정들이 살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봉건적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일제 식

민지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백정들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의 보기를 몇 가지 들어보면, 1907년 진주의 교회에서 일반교인들이 백정들과 동석 예배를 거부한 사건이나, 백정의 자제들이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상민 자제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봉건적 신분제 하에서 같은 천민 신분이었던 기생들조차 백정들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부할 정도였다.

물론 형평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백정 차별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형평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평운동이 특별히 진주에서 시작된 배경으로 진주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1920년대 초 진주에는 각 부문에서 직업적 운동가들이 주도한 민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진주청년회 중심의 청년운동, 진주노공이 이끌어간 노동, 농민운동, 각종교단체와 연관되어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1862년에 일어난 진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진주의 정치·문화적 바탕이 조성되었고, 갑오농민전쟁 때에도 농민군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형평운동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백정사회에 축적된 경제적 지원이었다. 전통적으로 백정들은 일반인들이 꺼려하던 도살업, 고기판매업, 유기제조업 등 특수한 직종에서 일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일반인들로부터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경제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19세기말부터는 도살업이나 고기판매업이 재물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뀌어갈 정도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진주 공설시장에서 가게를 갖고 있던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백정 상인들이 형평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실무적인 임원을 맡게 되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극좌(현 진주극장)에서 열린 형평사 발기총회에서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장지필, 이학찬 등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은 비 백정으로서 진주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 출신의 직업적 운동가들이었고 장지필, 이학찬은 백정의 후예로 장지필의 경우 일본에서 유학하고 난 뒤 형평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학찬은 진주공설시장서 고기판매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백정사회를 지도하던 인물이었다.

이 밖에 간사, 이사, 재무, 서기의 실무 부서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백정 출신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형제나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초기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직업적 운동가들과 백정사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창립선언문에서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기약함이 본사(本社)의 주지(主旨)이다. 오늘 조선의 우리 백정은 여하한 지위와 여하한 압박에 처하였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의 피눈물을 금치 못할 바라. 이에 곡절과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목전의 압박을 절규함이 우리의 실정이요, 이 문제를 선결함이 우리의 급무로 인정할 것은 적확한 지라. 낮으며 가난하며 열등하며 약하며 천하며 굴종하는 자 누구인가? 슬프다! 우리 백정이 아닌가! 그런데 여차한 비극에 대한 이 사회의 태도는 여하한가? 고위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우리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닐지라. 직업의 구별이 있다 하면 금수(禽獸)의 목숨을 뺏는 자가 우리 백정뿐이 아닌가 하노라. 본사(本社)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 이천만 중의 한사람이라도 애정으로써 상호 부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하며 공동의 존립 책을 꾀하고자 이에 사십 여만이 단결하여 본사를 세우고 그 주지를 천명해 표방코자 하노라.”

95년이 지난 오늘 형평사의 창립선언문에 ‘백정’이라는 단어 대신 여전히 이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대신 넣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성별과 노동자성, 수직적 갑을관계, 청소년,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 의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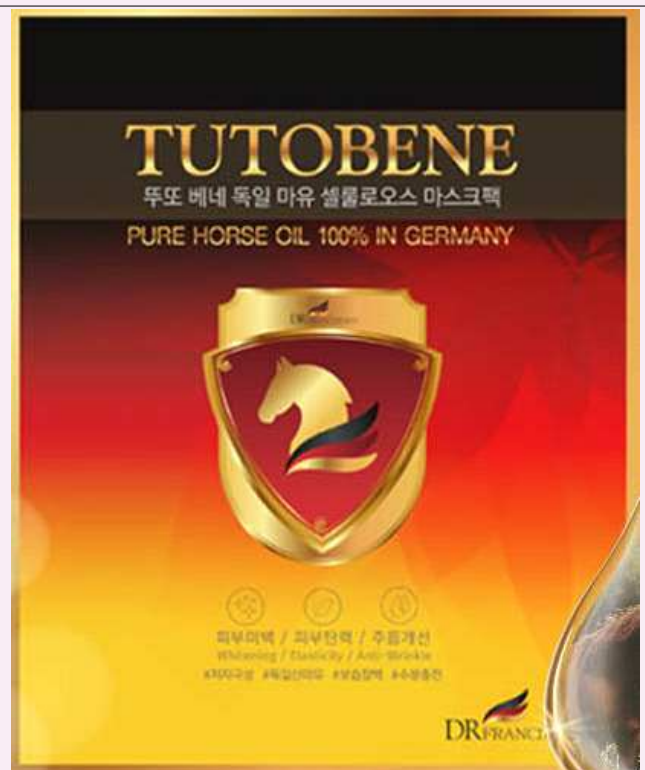
◎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나눔푸드 “나누미 홍삼” 일부 제품 가격 인상 안내

♠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나눔푸드” 에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주문하실 때, 반드시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이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063-433-7017(나눔푸드)**

※ 회원이 주문할 경우 총액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하며, 총매출의 10%는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종 류	가 격	비 고
나누미 홍삼 365 (30포*80mg)	65,000원(정상가) 58,500원(회원가)	박스포장
나누미 홍삼 365 (60포*80mg)	100,000원(회원가)	벌크포장
나누미 홍삼 365 (100포*80mg)	150,000원(회원가)	벌크포장

※ 2018년 3월부터 인상된 가격 적용